

차 O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2015. NOV + DEC



11/12



-
-
-
-
-
-
-
-
-
-
-
-
-
-
-
-
-
-
-
-
-
-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5

11 + 12



발행일 2015년 1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오수근
편집·진행 김명기, 박소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디자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표지모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세대공감**
법조윤리협의회 이흥훈 위원장 인터뷰
- 08 **로스쿨 탐방**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재 원장
- 12 **행복 로스쿨**
학생협의회 협의회장 이철희, 부협의회장 강은혜
- 16 **SPECIAL REPORT**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 20 **파워인터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
- 24 **특별기고**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
- 27 **로스쿨 핫이슈**
- 28 **로스쿨 특파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최선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천수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하영
- 35 **숫자로 보는 로스쿨**
- 36 **로스쿨 오피니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기 교수
- 38 **NEWS LETTER**
- 44 **로스쿨 생활백서**
- 48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52 **협의회 소식**
- 54 **툭아보기 / 문화가 산책**
- 58 **OUT CAMPUS / LAW 낱말퀴즈**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은 법조인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조인이라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5년간 법관 생활을 한 이흥훈 위원장에게 법조인의 덕목에 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editor. 박소희

법조윤리협의회 **이흥훈 위원장**

정의실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 학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법학석사)

■ 경력

제14회 사법시험 합격/서울중앙지방법원장/대법관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공익위원회 위원장 겸임)
現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Q. 법조윤리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A. 법조윤리협회는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다.(변호사법 제88조)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징계개시의 신청, 수사의뢰,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활동 내역 검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Q. 최근 '법조윤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법조윤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

A. '법조윤리'란 다원적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고, 초현실적 이상주의를 지양하여 법조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 수의 급격한 증가로 과거와 사뭇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법조인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상적 도덕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효적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윤리란 법조인이라면 반드시, 그리고 공통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핵심가치를 의미한다.

Q. 법조윤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나?

A.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더욱 넓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결국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징계개시 신청이나 수사의뢰 위주의 활동을 넘어 법령제도 및 정책협의,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법조윤리협회는 그 첫 단계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모든 법조인을 포섭할 수 있는 '법조인윤리선언'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Q. '법조인윤리선언'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A. 법조인윤리선언문은 완성이 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설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조인윤리선언' 선포식 행사를 금년 중 계획하고 있고 빠르면 11월 중

에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윤리선언문은 기본적으로 인권옹호, 정의실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은 법조인의 기본 덕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윤리선언에는 법조인이 가져야 할 도덕성, 윤리 등이 내용으로 담겨 있으며, 이 선언을 통해 법조인의 윤리의식이 함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사법불신의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A.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직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며, 일련의 공정하지 않은 재판과, 투명하지 않은 검찰 수사, 공개되지 않는 재판 절차 등이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됐다고 본다. 또 국민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법조인의 정의실현, 인권옹호 활동 보다는 부당한 수익률, 부당한 사건 선임 과정 등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되니 사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Q. 2011년 전관예우 방지법이 개정되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에 종사하는 동안 쌓아온 법률적 지식과 소양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연과 경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현직에 있을 때에도 공익 활동에 대한 뜻이



사진출처: 조선비즈

있었는데, 퇴임 이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공익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많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기금이 마련돼 재단이 구성됐다.

현재는 여러 가지 공익 소송과, 사회 봉사활동, 기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출발 단계에 불과해서 큰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에 여러 대형로펌과 중소로펌에서도 공익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선진국 만큼의 공익활동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공익 활동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익활동도 법조윤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Q.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약 35년간 법관 인생을 살았다.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윤리의식, 철학이 있는지?

A.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거나, 인권옹호, 정의실현 등 나름의 이루고자하는 꿈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조인의 기본 사명인 인권옹호, 정의실현 등을 실천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또 법조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생각'이다.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윤리를 실현해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법조인에게는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사회와 국민들에게 헌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지금

과 같이 사회가 분열되고 양극화 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조인은 사회와 국가의 통합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Q.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단에도 있다. 종래의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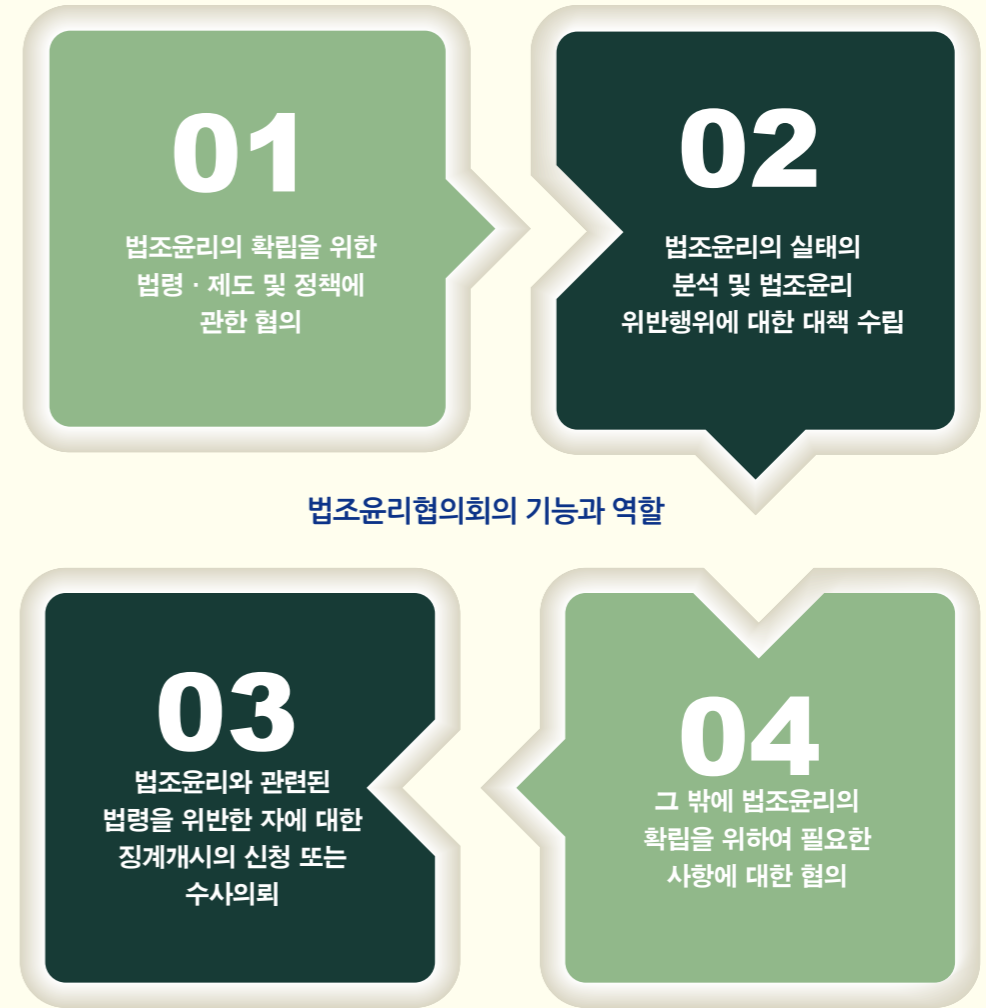
A. 선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실력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10여 년 이상의 논을 거쳐서 도입됐다.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률 지식만을 갖고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온 것이다. 다양한 기초적 소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률 지식을 접목해서 법조인이 되면 국가나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수원 출신과의 갈등은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Q. 최근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흠집 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와 법학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대립과 갈등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자칫해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고, 국가가 과거 사법연수원에 지원하던 비용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서로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충분한 설명과 경청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것은 법조계와 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Q.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A. 법조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전히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존재한다. 특히 취업률 등의 문제는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차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법조인의 자긍심과 사명을 가지고 곳곳하게 나아가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은퇴 후 꿈꾸는 삶이 있다면?

A. 고향인 전북 고창에 70년 된 고택이 있다. 현재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데, 정식으로 은퇴하면 그곳으로 내려가 지내면서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싶다. 미국의 사설법정과 비슷한 개념인데, 동네에서 원로 법조인이 무료로 법률상담도 해주고 중재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시간도 줄이고, 법원의 사건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창**

지난 7월 1일, 대법원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명했다. 임용된 37명의 법관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함과 동시에 좋은 성적을 거둔 저력에 대해 물었다. editor. 박소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재 원장**

지역과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합니다!



Q.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부심은 무엇인가?

A. 경북대학교 법전원은 지역거점 국립대 법전원으로서 입학전형, 장학금, 교육과정, 졸업생 사후관리 등 모든 운영계획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저렴한 등록금과 엄격하고 투명한 입학전형제도는 어느 법전원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특화활동제도’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생활지도나 학습상담을 뛰어넘어, 학생이 원하는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7개의 범무계별 특화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교수 1인당 학기별로 실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함으로써 그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최대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Q. 교육목표와 운영철학은 무엇인가?

A. 교육목표는 “책임을 다하는 특화된 법조인 양성”이다. 즉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과 ‘특화된 법조인’의 양면을 겸비한 진정한 법조인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해결해 주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법률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강조할 점은 경북대 법전원에서는 이른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법조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은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평소 학생들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인 조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진정성과 호소력을 갖춘 대화능력을 구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이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에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전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교수님들이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

Q. 경력법관 배출 전국 2위의 쾌거를 이루었다.

A. 경북대 법전원 출신 변호사 4명이 2015년도에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경력법관에 임명되었다. 학생들의 우수성과 전국 2위라는 순위와 관계없이 이 결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임용된 4명 모두 비법학도 출신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비법학도가 로스쿨에 입학하여 생면부지의 법학을 공부하기란 쉽지 않고, 더욱이 로클럭에 선발되어 판사 임용까지 받기란 더더욱 힘든 일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북대 법전원이 제공하는 3년간의 교육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할 것이다.

Q. 장학금 혜택이 눈에 띈다.

A. 경북대 법전원은 국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사립대 법전원보다 50% 정도의 장학금을 미리 받고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나아가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7명의 학생에게는 3년간 전액장학금이 주어진다. 또한 경북대 법전원 자체장학금, 대구시 장학금, 범주장학금, 제자사랑 교수장학금, 초당장학금 및 외부 장학재단의 장학금 등 여러 가지 장학기금을 통하여 경제적 곤란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장학금 배분방식에 있어서도 소수의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학금을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고 있다. 특히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수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 보다는 최대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분산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기 양양과 학습의욕을 제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Q. IT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

A. 경북대는 1970년 초기부터 전자계열 국책공대로 지정, 육성되어 왔고,

2001년 경북대 정보기술분야가 특성화분야로 지정되어 대형 국책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대구의 인근 도시인 구미시가 국가정책에 따른 전자공업도시로 발전해 온 교육환경을 고려하였다. 특히 IT 분야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 및 세계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는 시대적 환경에 발맞추어, 이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해결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법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매년 입학전형에서 국내 이공계 특히 IT분야의 학부전공자들의 입학률이 타 법전원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Q. 지역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

A. 대구 지역은 인구나 경제력 측면에서 과거 전국 3대 도시라는 위상에서 많이 퇴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역량과 인재육성의 측면에서는 아직 지방 최고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다. 특히 그 핵심적 역할을 경북대와 경북대 법전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전원 학생들 중 상당수가 서울 소재의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법전원에 입학했지만, 성장기반은 거의 대구지역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북대 법전원 출신인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	특화된 법조인
인권의 수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의 해결에 특화된 법조인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특화된 법조인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	공익 및 기업 법무에 특화된 법조인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	IT 등 첨단기술 시대에 특화된 법조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	지역사회의 법률수요에 특화된 법조인



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공공기관 및 기업에 진출하여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우리 법전원 출신 변호사 중 IT법 특성화 법전원의 위상에 걸맞은 IT법 혹은 변리사 등을 겸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적 한계는 있지만, 머지않아 대구지역 활성화를 선도하는 일꾼이 될 것으로 믿는다.

Q.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활발한가?

A. 학생들의 전공학습동아리가 매우 다양하고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헌법연구회, 상사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 노동법학연구회 등등의 학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매학기 지도교수와 함께 개최하는 관련 세미나 활동, 외부 전문인사 초청 특강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희망직역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등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북대 법전원 로리뷰' 편집팀이 연간 1회 발간하는 로리뷰는 그 내용의 질과 양의 면에서 국내 최고의 법전원 로리뷰라고 평가되고 있다.

Q. 알게 모르게 지방대 로스쿨이 차별받는다는 우려는?

A. 가장 차별적으로 느끼는 것은 변호사시험 장소의 선정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은 서울 소재 몇 개 대학과 충남대학교에서 치러졌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5일에 걸쳐 치르는 고행에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심리적, 육체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대 법전원 학생들은 시험 시행 며칠 전부터 시험장소 근처의 호텔이나 모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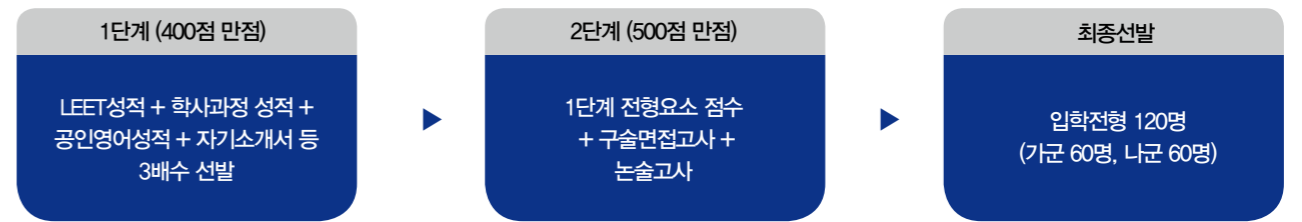
을 빌려서 생활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하고 차별적인 대우이다. 금전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육체적, 심리적 안정감이 변호사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라도 최소한 영남, 호남에도 시험장소를 확대실시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도 실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지방대 법전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대우를 받는다. 대형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때 차별대우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본다. 나아가 대형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차원의 변호사 대상 취업설명회도 지방에서는 개최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에서 경북대 법전원은 자유로운가?

A. 최근 언론을 통하여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을 지목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음서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단호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본다. 또 근래 소수의 사회지도층 자제인 법전원 출신 변호사의 취업 청탁 등이 문제된 바 있으나, 이는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것이지, 법전원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언쟁과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도입된 지 7년 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전원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경북대 법전원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고 투명한 입학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구술면접고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 면접문제를 출제하여 시험 당일 공개하며, 면접관은 법전원 교수 2명과 외부변호사 1명이 한조가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되며, 각조는 추첨으로 시험 당일 아침에 결정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전형요소가 우수하다고 하여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형요소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Q. 한 법전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최대 고민은?

A.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성적 공개가 예정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과목 여부와 출제비중에 따라 수강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현저하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법전원의 설립취지와는 배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에게 법전원의 취지에 맞는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제도의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점을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는 법전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오해 및 편견 때문에 법전원 교수와 학생들의 심리적인 위축과 사기저하 등이 크게 염려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제도를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Q. 2016학년도 입학전형이 진행 중이다. 경북대학교 법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A. 경북대 법전원은 국립대 법전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학교이다. 출신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법전원으로서의 저렴한 등록금, 풍부한 장학금, 재학생 전원을 수용하는 전용기숙사, 1인 1석의 열람실, 10만 여권의 장서를 보유한 독립된 법학전문도서관 등 다른 법전원을 능가하는 물적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경북대 법전원이 실시하는 3년간의 교육과정과 특



별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대 법전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은 예비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경북대 법전원을 선택하라고 권하고자 한다. **창**

대개의 학생회장이 그렇듯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단도 명예직에 속한다. 회장과 부회장이라고 해서 학점을 잘 받는 것도 아니고(대부분 그 반대), 활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6,000여 명의 법전원 학생들의 입이 되어줄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다른 각오와 다짐으로 제13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부회장으로 선출된 이들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학교 다니면서 생긴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협의회장 이철희(충북대 6기)



부협의회장 강은혜(이화여대 6기)

Q.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

은혜 학부 때 통역 봉사활동을 했다. 불법체류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나게 큰 뜻을 품고 법전원에 진학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내 특기인 영어를 접목시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는 학우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웃음)

철희 전공이 스포츠 의학이라 운동선수들을 많이 봤다. 우리나라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라서 김연아나 박태환같은 이슈가 되는 선수들 빼고는 프로 진출이 어렵다. 또 프로 진출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선수는 소수이고, 짧은 선수 생활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계약을 맺을 때에도 구단이 '갑', 선수는 대부분 '을'이다. 현재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됐고, 개정도 됐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전원에 지원했다.

Q. 법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팁을 준다면?

철희 가장 중요한 건 법전원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방법론은 아니지만, 만약 법전원에 입학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에 취업을 준비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한다. 열어놓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마음에 부담이 덜 돼서 그런가?

은혜 다시 법전원 입학할 준비한다면 리트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리트는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 아닌 것 같다. 학생 스스로 얼마나 오랫동안 책을 많이 읽고 사고 능력을 길러왔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에 가깝다. 대신에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공을 들이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한 접근인 것 같다.

Q.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철희 학생협의회가 없었을 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 행정부끼리만 논의를 하다 보니 정작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하지만 법전원 제도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학생들이다. 법전원 제도의 당사자는 학생인데 교수, 국가의 이야기만 반영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학생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자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주대학교 법전원 회장이 처음으로 학생협의회를 만들게 됐다. 나와 은혜는 13대 회장&부회장이다.

은혜 각 법전원의 회장단은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민들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법전원 학생협의회는 25개 법전원의 학생회장단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각 학교에서 취합된 문제들을 공론화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Q. 어떻게 둘이 같이 하게 됐나?

철희 내가 같이 하자고 한 달 반 정도 쫓아다녔다.

은혜 에이, 6주 중 5주는 다른 사람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에 러브콜 했으면서.

철희 아니야. 은혜를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러닝메이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니까. 13대 회장&부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내부적인 조직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의견이 잘 맞아서 함께 하게 됐다. 뭐 아직까지 크게 이룬 것은 없다. 하하하.

Q. 25개 법전원이 전국에 흩어져있어 각

학교 회장단이 모이기도 쉽지 않겠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은혜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모두들 잘 도와주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하더라.

철희 아무래도 명예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각 법전원의 학생회장도 장학금을 어느 정도 받기는 하지만, 명예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다.

은혜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열심히 한다. 하하하.

Q. 학생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은혜 학교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1인당 240원씩 걷는다. 물론 재학생 개개인에게 걷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차원에서 운영된다.

법조인은 옳다고 믿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99

기본 분담금이 12만원이고, 거기에 일인당 240원씩 계산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많은 돈이지만, 뭔가 하나 시작하면 부족한 돈이다.

철희 법전원 학생협회의회는 돈이 많이 없다. 의전원의 경우 선배들이 많이 지원을 해줘서 풍족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던데.

Q. 13대 학생협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철희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국회의원과 기존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법전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또 8월 말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야구대회와 축구대회를 주최해 우승팀에게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했다. 올해는 연대(야구부)와 경희대(축구부)가 우승했다. 아, 나도 한골 넣었다. 예선타락했지만.(웃음)

은혜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도 했다. 페이스북으로 25개 법학협이 전국 6,000명의 원우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법전원이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것이다. 여러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홈페이지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향후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가?

은혜 단발성 프로젝트로는 재학생들의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있다. 청원서 형태로 넣고 싶은데 국회의원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은 보류중이다.

철희 현재까지 확보한 서명서만 3,500장 정도 되고, 아직 취합하지 못한 학교도 있으니 아마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애매하다.

은혜 장기적 프로젝트로는 변호사시험장의 지방권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으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Q. 법전원에 다니면서 받았던 오해?

철희 법전원에 다니면 모두 돈이 많은 금수저인줄 안다. 물론 법

전원에도 좋은 집 자제는 있다. 하지만 학부 시절에 볼 수 있는 만큼 있는 건데, 유독 법전원에서만 이슈가 돼서 안타깝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있다고 하면 과장·부각된다.

Q.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은?

은혜 사법시험만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그들의 논리에 공감할 수 없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법전원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법전원 내에서 지켜본 바로는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비해서 우리 또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무엇보다 입시의 투명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입학전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소문들을 타파할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전원 입시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어느 학교는 영어랑 학점만 본대”, “어느 학교는 나이 많으면 안 된대”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많다고 합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됐으면 좋겠다.

Q. 졸업 후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은혜 법전원에 들어와서 느꼈다. 법조계의 직역은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 근시적으로 말한다면 첫 직장은 로펌이었으면 좋겠

다. 물론 다른 공부도 해보고 싶다. 국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주변에 미국 로스쿨에 간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LL.M도 도전해보고 싶다.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이후에는 로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철희 충남 부여가 고향인데, 고향에 변호사가 한명도 없다. 부여가 생긴 이래로 변호사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에서는 변호사가 넘쳐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려고 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전원의 도입취지 중 하나는 지방 분권이였다. 지역 출신 변호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열심히 뛰어나다 보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Q. 어떤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나?

은혜 닳고 싶은 분을 만났을 때, 어떤 법조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최근 전윤경 검사님께서 검찰 실무수습을 맡아주셨는데,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변호사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쉽지는 않겠지만.(웃음)

철희 요즘은 개인의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 무슨 이야기만 해도 똑똑한 척, 정의로운 척, 올바른 척 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옳다고 믿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법조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더 유리하게 주어지지 않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Q. 나에게 법전원은 어떤 의미인가?

은혜 법전원은 그냥 ‘학교’다. 다른 사람들이 자격증 하나 더 얻고자 학원에 가듯, 나도 변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내게 있어 법전원은 정말 ‘배우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24시간 동안 붙어있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여자고등학교에 온 기분이다.



드라마도 상당히 많다. 할 일도 많고.

철희 나한테 법전원은 좋은 곳이다. 공부 빼고는 다 좋다.(웃음) 애들이 열심히 공부 하는 게 좋다.

은혜 약간 빅브라더 느낌인데?

철희 대학교 다닐 때는 실습이 많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법전원에 오니 모두들 열심히 하더라.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다. 또 그중에서도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공부를 제일 독하게 하더라.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멋있다. 아, 질문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다른 걸로 해야겠다.

은혜 은유적인 걸로 해.

철희 법전원은 내게 ‘망원경’이다. 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한곳에 국한되어 있던 시선이 넓어졌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다. 창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일시: 2015년 9월 15일(화) 16:00~18:00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지난 9월 15일(화)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세미나에 앞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 또는 법전문 입학전형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들도 법전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종학 원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주제발표는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은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용승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현호 논설위원(한겨레신문), 조일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가 맡았다.

여기서 잠깐! 미국 야간 로스쿨에 대해서

- 2013년 ABA 통계에 의하면, ABA가 공인한 로스쿨의 JD과정 재학생 총수는 128,641명인데 이 중 14%에 해당하는 18,450명이 야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이 통계는 미국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숫자임을 보여준다.
- 야간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은 대도시이거나 남부나 서부의 대표적인 상업중심지이다. 전업 학생들이 수학하는 주간 로스쿨의 경우는 소규모 도시에 로스쿨이 위치해도 영향이 적지만, 야간 로스쿨의 경우 주간에 직장을 다니며 야간에 통학이 가능한 지가 학교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 주간 프로그램이 3년(6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수학할 것이 요구되는 반면, 야간 프로그램은 파트타임으로 4년(8학기) 동안 다닐 것이 요구된다. 대다수의 야간 로스쿨이 저녁 6시에 첫수업을 시작해, 마치는 시각은 9시 반에서 10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야간 과정의 등록금은 학점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 로스쿨의 관행이다. 이 부분은 실제로 수강하는 학점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등록금을 내야 하는 주간학생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야간 학생들은 주간학생에 비해 적은 등록금을 납부하게 된다.



“진입장벽과 고비용 문제 해결 가능해”(김재원 교수)

장학금을 확충하고, 장학금은 성적이 아닌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건비를 줄이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기회비용의 문제다. 현 제도에서는 법전문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거나 휴직해야 한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는 휴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법전문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해결책은 야간 및 온라인 법학교육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해”(한상희 교수)

야간·온라인 법전문을 통해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의 유연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조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야간·온라인 법전문이 도입될 경우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장벽이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이 법률 시장을 확장해”(강용승 교수)

미국의 야간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법률 시장이 더욱 확장할 수 있다. 미국 야간 로스쿨생은 전체의 14% 정도지만, 한때 40%를 육박하던 시기도 있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이다.



“법전문 제도의 패러다임은 유지되어야”(여현호 논설위원)

사법시험과 법전문 체제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문제, 변호사 자격시험화 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고 야간·온라인 법전문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오늘의 세미나가 법전문 제도의 전면적인 대수선을 법전문 스스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온라인 통해서도 충분히 완성도 높은 교육 가능해”(조일현 교수)

야간·온라인 법전문 도입을 법학도의 시각이 아닌 교육공학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양성은 지식 축적과 임상체험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일시: 2015년 10월 12일(월) 14: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10월 12일(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7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세미나가 개최됐다. 송석윤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주제발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김관기 변호사(김박공동법률사무소), 최유경 박사(서울대·이화여자대학교)가, 토론은 강민정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 공태윤 차장(한국경제신문), 김두열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부), 김태환 변호사(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개선특위 부위원장),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법원행정처), 최명민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맡았다.



“법전문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이 돌아본 법전문 시대 7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법전문 제도 도입 7년은, 새로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기간이었고, 법전문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는 과거 방식이 법전문 제도 취지 달성을 위협하며 불편하게 동거하는 기간이었다. 현재 법전문을 통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법률가 사회의 다양화와 균형이 촉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시키고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법전문 제도와 모순되는 변호사시험의 정원제 선발시험 성격을 빨리 없애고, 법전문 제도 시행과 함께 바뀔 수밖에 없는 법관 및 검사임용 등에 관한 바람직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김관기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는 “제주, 강원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법전문이 지역적 분권을 강제로라도 신장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현재의 사법시험은 다양한 경로로 법조인이 되는 것을 막는다. 다양성을 위해 사법시험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등록금도 면제해주고, 국가에서 월급까지 주는 특권적인 법전문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법전문이 부자들에게 편향적인 기회를 줌으로써 음서제를 결과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실 법전문은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주는 우월한 지위를 의도하지 않았다. 부자에게 기회가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은 사법시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최유경 박사)

최유경 박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759명, 전체 선발 인원 대비 약 6.14%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했고, 이 기간 동안 특별전형자 약 93.64%에게 등록금의 88.14%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전형 입학자가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고 다양한 전문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와 연계하는 시도는 법전문 진입장벽 완화 방안으로서 특별전형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현재 특별전형제도는 세부유형과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법전문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도 법전문 성과와 제도 개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강민정 검사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에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연구 검토 중이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태윤 차장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극도로 예민해져 주변에 피해를 주던 선배의 일화를 소개하며 “사법시험 시대의 유물인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열 교수는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할 볼 때라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의 일류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의 교수진을 보면 놀랄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교수진에 포함되어 있다. 명문법전문원의 경우 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발인원이 많더라도 모두 합격시키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선발 인원이 적더라도 불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입학 불투명성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14년 6월 제시한 《법전문 입학관리, 시험관리, 인성교육 필요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실천과 현실화를, 3년이라는 짧은 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생들의 법학지식을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명민 교수**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취약계층·소외계층은 상당히 유동적일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고등학생 시절 유독 암기과목이 약했던 김정욱 변호사는 이공계 진학을 마음먹는다. 암기 위주의 한국 교육에서 '외우기'에 능통하지 않았기에 한때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다던 그.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로서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다. "제가 모든지 조금 느린 편이에요. 빠르게 한다는 명목 하에 대충대충 하는 건,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잖아요." editor. 박소희

다양한 경험 해보고, 넓은 시야 가져야

법무법인 광고 김정욱 변호사



■ Profile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학사,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시험 2회
前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現 법무법인 광고 변호사
現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Q. 대학시절 산업공학을 전공했다고 들었다.

A. 사실 학부 시절에는 학업에 충실한 타입은 아니었다. 암기를 못하니 학점도 좋지 않았다. 당구장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고, 사람들을 좋아하다보니 동문 회장을 비롯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때 4개까지도 했었다. 한때 스타그래프트라는 게임에 푹 빠져 성균관대학교 전체 우승을 한 적도 있다. 그러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갔고, 6시그마와 실험계획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소쪽으로 취업도 하게 됐다.

Q. 취업도 이공계 분야로 한 것인가?

A. 그렇다. 연구 개발을 해보고 싶어서 이공계 분야로 취업했다. 그런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까 실험 쪽 업무가 굉장히 힘들었다. 매일 새벽 1시 반에 퇴근하는 건 기본이고, 하루 종일 현미경만 보니까 나중에는 목 디스크까지 왔다. 또 하루 18시간씩 연구실에서 지내다 보니 2년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더라. 힘은 들었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었다. 약간 일 중독 성향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그때는 정말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일했던 것 같다.(웃음)

Q.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회사 다닐 때 변리사를 만나서 특허신청 업무를

함께 진행했었다. 그때 진행한 37건 중 13건 이상이 내가 개발자로 되어있을 만큼, 특허 업무가 재미있어 열정적으로 일했다.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지 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고,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업무를 비롯해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의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Q.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A.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30살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합격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도박에 미래를 투자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사회에서의 경력도 있고, 특기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Q. 학부 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도여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

A. 처음엔 한자를 읽지 못해서, 법대 나온 친구들이 책을 독을 달아줬다.(웃음)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시험 답안지 작성에도 애를 먹었다. 공대 시험이라면 2줄 적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동기들이 서너장씩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신기했다. 법리를 해석해서 여러 장으로 풀어쓰는 것이 법대시험의 특징인데, 공대생인 나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몰랐던 것이다. 졸업할 때 되니까 익숙해졌다.

그런데 비법학 출신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상위권에는 비법학 출신이 더 많았다. 물론 나는 예외였지만, 하하하. 대신에 지금은 변호사로서 꽤 자신 있다. 시작이 느린 편인 대신 어느 단계를 넘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응용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한다.

Q. 법전원 졸업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입사했다. 안정적인 대한변협을 나와 본격적으로 개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

A. 대한변협에서는 사무차장으로 있었다. 물론 변협에서의 일이 싫었던 것은 아니다. 주로 위원회 일을 했기 때문에 각종 회담이나 협상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서 재미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변호사로서는 도태되는 것을 많이 느꼈다. 남들이 볼 때는 '신의 직장'일 수 있겠지만,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

은 아니었다. 마침 변협에서 함께 근무하던 변호사님께서 개업을 제안하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Q. 개업 후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기업 자문(계약, 세무회계, 개인정보, IP, 지적재산권, 고객대응)을 비롯해 보험, 민사, 손해배상 등 전반적인 송무 업무를 하고 있다. 개업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했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왔던 의뢰인 중 90%가 다시 내게 돌아와 사건을 수임했다. 내가 뛰어난 변호사여서가 아니라, 아마도 잘 들어주는 변호사여서 그럴 것이다.

최근에는 (사)한국IT전문가협회(IPAK)라는 대규모 협회의 단독 자문 변호사로서 위촉도 받았고 그 외에도 소규모 협회 2곳에서 자문변호사가 되었다. 덕분에 이쪽에서도 사건이 들어오고 있다. 원래 전공을 살려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해드리다 보니 이런 기회가 생겼고, 기쁘게 생각한다.

Q. 개업 변호사의 일일일단은 무엇인가?

A. 가장 좋은 점은 일반 회사원과 다르게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의 강약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사건이 좋게 해결되면 의뢰인으로부터 은인 대접을 받는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하는 의뢰인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

반면 힘든 점은 일의 끝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뢰인들로부터 전화 상담이 많이 오는데, 20명의 의뢰인으로부터 하루 한통씩의 전화를 받는다고 해도 반나절이 지나간다. 무엇보다 감정이입이 잘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의뢰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결정했을까? 하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크게 잘못하지 않아서 원망은 듣지 않고 있지만, 매우 조심스럽다.

Q.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해준다면.

A. 넓게 봐야 한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당장 취업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사회에 나간 몇 년간은 투자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시기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경험해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을 잡는 시기다.

또 돈만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학의 경우 100을 공부하면 80 이상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번 잘 공부해두면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활용하게 된다. 그러니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했으면 한다. '현재 내 직급이 대리니까 연봉은 얼마다'라는 고민을 하는 건 정말 사회 초년생의 시각이다. 당장 얼마 받는 것에 연연해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으면 한다. 사내변부터 공직이나 송무변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다보면, 의외로 자신에게 맞는 분야가 보일 것이다.

개업 역시 마찬가지다. 의사와 달라서 변호사는 큰 부담 없이 개업을 시도해보는 것이 가능하고, 적성에 맞는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내 지인 중에도 법전원 출신 변호사로서 개업 2~3년 만에 중견변호사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시작은 막막하겠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다보면 분명 법전원 3년의 기간이 헛되지 않을 만큼의 멋진 길이 있다고 전해주고 싶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을 위해 출사표(出師表)를 던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를 출범시켰다.

집행부가 정말 많이 고생했다. 다들 생업과 병행해가면서 새벽 3-4시까지 회의를 계속했다. 그 결과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탄생할 수 있었다. 현재는 약 700여 명의 법조인이 가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로만 구성된 단체를 만든

이유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일부 회원만의 입장을 대변해서,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공격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전원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대응하고자 단체를 만들게 됐다. 또 법전

원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한 제도이지만, 아직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후 한법협은 법전원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법조 후배들을 위한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에 법전원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활동들도 한법협의 목표이며,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한법협은 어떤 단체인가?

법조계의 화합을 도모하는 단체다. 현재 법조계에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변호사회, 청년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같이 법조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



66
사법시험 존치 운동은 일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허위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99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한법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법시험 존치 운동은 일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허위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은 법전원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존치를 위해 법전원의 문제를 확대하거나 허위로 거론하던 것이 시작이다. 이런 움직임이 몇 년간 계속되다보니 국민들의 법전원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깊어 졌다.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과거에 사법시험이 안고 있던 폐단은 모두 유지될 것이다. 법전원을 겪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법전원 제도는 돈이 없다고 해서 공부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 결국 기존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이 예전 같은 대우를 누리지 못하게 되자,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자신들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한법협은 근거 없는 사시 존치 주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법전원 제도가 올바르게 개선·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의 자질 문제도 제기됐다.

물론 연수원 과정이 없다보니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실무에 약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송무를 경험해 보면 이러한 차이는 금방 극복된다. 최고의 실무 경험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하고 찾아보며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몇 번만 쌓이면,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사건을 받

복하다보면,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내가 확실히 더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붙는다.

무엇보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연수원출신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받는 대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작년에 변협에서 신규변호사 수입을 전수조사 했는데, 수습기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양 집단의 연봉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오히려 법전원 출신은 특권의식이 없고 성실하다는 평이어서 최근 취업시장에서는 더 선호하는 곳도 많다.

한법협의 향후 계획과 추진사항은?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지금의 법조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시험을 원안대로 폐지하면서,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또한 법전원에 대한 오해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의 봉사활동, 후배들에 대한 멘토 활동과 장학금 지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창**

이주민과 친구가 되고 싶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영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입니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금은 법무법인 덕수에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글을 기고 해주셨던 변호사님들처럼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사내변호사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후배님들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밀려오는 기일과 서면을 걱정하고, 조(朝)근과 야(夜)근을 하면서도 부족한 깜냥으로 속절없이 지나는 시계를 따라잡느라 켜걸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피부색/국적/언어가 다른 이주민들과 내국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자신들의 인권과 삶을 서로 복돋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선배 변호사님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국내에서 오래 체류한 이주민들과 함께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젠 내국인 종업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 내국인과 결혼한 혼인이주민(여성/남성)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TV에서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들이 각자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한국사회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조금씩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법무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1,4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622,868명)에 비해 10%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제주도 인구의 3배가 넘고, 광역시 중 하나인 대전광역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5년 경 체류외국인 숫자가 약 74만 명 정도였던 점에 비춰볼 때, 10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약 300%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주민들의 체류 형태도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2005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74만 명 중 30% 정도가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단기(90일 미만)간 체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공장과 같은 제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80만 명의 체류 외국인 중 단기 체류하는 숫자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80%에 이르

는 143만 명의 외국인이 단기 체류목적이 아닌 일자리, 결혼, 장기 거주, 전문취업, 투자 등의 다양한 사유로 자신들의 삶을 한국으로 “이주” 하여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말보다 거주와 삶이 옮겨온 “이주민”이라는 말이 더 알맞게 되었습니다.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루는 어엿한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아직도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행정기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본부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을 “관리” 하고 “추방”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출입국단속이 행정작용이라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요구되는 인권보호 제도(영장주의 등)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반인권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매년 반복됩니다.

#2.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이야기 할까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2003년 경,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을 시절, 명동성당 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처음 마주하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공장에서 배운 이주노동자들의 실전용 반말 한국어 구사 능력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그동안 존재하지만 목소리가 없었던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에 처음으로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때 즈음하여 공중파 한 개그프로그램에서 이주노동자가 화자로 등장하여 “사장님 나빠요” 라는 유행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각종 언론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도하고, 출입국관리소의 비인간적인 단속에 대한 문제점도 처음 지적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만났고,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생생한 언어로 설명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삶이 차별받아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며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등 시민으로 대우받는 이주민들의 삶은 저에겐 숙제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쟁으로 가득 찬 대학에 순발력 있게 적응하지 못한 아둔함으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졸업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살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이주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법인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이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꾸준히 해오셨고, 자연스럽게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고 하던가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변호사님들이 점점 많아졌고, 후원을 하겠다는 후원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단체를 만들

기로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난 2014년에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카페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속변호사로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기록과 함께 사무실에서 보내면서, 시간을 쪼개 <친구>의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훌륭한 동료 변호사님들에 비취보기에는 한없이 적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 그리고 법을 다루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은 제가 마주하는 세상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행복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좀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시간 중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3.

두서없고, 부족한 글의 끝맺음을 갈음하여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http://cafe.daum.net/friendnetwork)>는 “평화/인권/공존”을 지향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저를 포함한 24명의 변호사와, 노무사, 행정사 등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국내에서 오래동안 체류한 이주민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주민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서울 성북구 소재 라파엘 클리닉, 매주 화요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글로벌센터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소송구조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송을 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림동에 위치한 카페(CAFE)에서는 매주 월~수요일에 변호사가 상주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실, 바리스타 교실, 영화제, 문화교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활동의 독자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주민지원센터의 운영은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친구>의 도움을 받은 이주민들이 작년 한 해 500명을 넘었고, 지금도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희망을 꿈꾸는 이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혹시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친구의 활동에 참여 또는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friendnetwork@hanmail.com 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창**

조영관 변호사 천성적으로 손과 발이 느려 대학을 오래 다녔다. 제 아픔만 살피는 아둔함으로 주변에 갇아야 할 빛이 많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국회에서 일을 하다 인생에 몇 번 없었던 신속한 결단으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지금은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며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회실에서 야식을 시켜두고 기타를 튕기며 놀던 버릇이 남아 음주가무에 능하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을 꿈꾼다.

부산대 법전문대학원 음악동아리 '프로뮤지카' 정기연주회 열려

지난 9월 11일(금)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효원회관)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음악동아리 'In dubio pro musica'(이하 프로뮤지카)의 제7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법전문원이 설립된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된 정기연주회로 올해는 특히 부산법원 클라리넷 앙상블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오케스트라단 BACO(Busan Attorney Chamber Orchestra)가 함께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사진제공: 프로뮤지카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초은고 헌법모의재판 진행

9월 25일(금)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121호 모의법정에서는 인천 초은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헌법모의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조계 진로를 희망하는 초은고등학교 학생 20명(1학년 10명, 2학년 10명)이 참가하였고, 백경희 리걸클리닉 센터장의 인하대 법전문원 소개와 헌법재판소 및 소송유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법전문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헌법모의재판 순으로 진행되었다. 헌법모의재판의 주제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참가학생들은 재판부팀, 청구인팀과 피청구인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주장논리를 만들고, 판결문도 작성했다.



사진제공: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돼

지난 8월 19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전국 8개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참가하여 그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4개팀(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충북대)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대상은 신주인수권 거래 및 주식매수청구권 사안을 재구성해 회사법 법리를 실제 재판과 유사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서울대 법전문원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서강대팀, 우수상은 이화여대팀, 장려상은 충북대팀이 각각 받았다.



사진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최병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로마법 분야 권위자인 최병조 서울대 법전문원 교수가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지난 10월 28일(수)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룸에서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최병조 교수에게 상금 5천만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재단 측은 "최 교수는 로마법과 서양법제사 연구에 매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성과를 우리 민법에 적용, 해석하는 등 법사학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로마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창**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꿈꾸는 분들에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최선민



6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력의 유지입니다. 99

자기소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자기소개서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진학 동기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누구나 제 전공과목과 법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 하였고, 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궁금해 했습니다. 교수님 역시 그럴 것이라 판단하였고, 더더욱 진학 동기를 자기소개서에서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학 동기가 명확하다는 것은 즉 졸업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동기를 명확히 하여 일관된 모습으로 자기소개서에 제 자신을 표현하였고, 덕분에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했던 실수는 대학시절의 모든 경험을 담아내려고 욕심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여러 모습과 모든 경험을 서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물은 오히려 이미지가 중첩되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짧은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에게 지원자의 명확한 모습을 그리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중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제 경험을 취사선택한 것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입학공동설명회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설명회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수님, 재학생, 행정직원들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공동입학설명회를 가기 전에 미리 상담 받고 싶은 학교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간략히 써보면서 큰 틀을 잡아보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각 학교 부스에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구상한 내용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공동입학설명회에서, 한 학교에서는 저의 공학 전공과 앞으로 배울 법학을 잘 섞어 새로운 가치를 나타내보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지금 전공했던 것을 억지로 함께 표현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의 자기소개서 양식과 더불어 설명회에서 들은 조언을 되새기며 제가 지원한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기소개서가 내용의 큰 줄기는 같으나 표현하는 방식을 상당히 다르게 하여 저를 소개하였고, 덕분에 지원한 두 학교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어 뒤늦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했고 주변에서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리트 시험을 보기 전부터 꾸준히 법률신문을 읽으면서 법조계의 이슈들을 파악했고 법조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제 진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조계에서 발행하는 잡지와 신문 덕분에 제 자기소개서에서 진로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 있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비법학을 전공하시거나 주위에 법조인이 없어서 실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의 삶을 명확하게 알기 힘든 분들에게 법조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면접 준비

리트 시험이 끝난 후에 스터디를 조직하여 주 2회 정도 모여서 실전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리트 시험을 볼 때처럼 독해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서와 논술 개요 잡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보통 면접은 말하기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은 말하기와 동시에 '읽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의 면접 방식은 짧은 시간 동안 긴 지문을 읽고 해당 문제의 답을 면접위원들 앞에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 지문을 최대한 빨리 읽고 이해하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복기된 기출문제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한 스터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면접 문제를 공개하는 학교가 몇 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복기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실제 면접 시험장에서 어렵고 긴 지문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언어이해를 준비하듯이 꾸준히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독해력을 최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스터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들은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헌법적 문제를 논증합니다. 판례를 읽어보면서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했던 것도 면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력의 유지입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압박으로 정신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전 꾸준한 운동으로 부족한 정신력을 보완했습니다. 면접시험을 치르기 전에도 식습관, 운동습관 등 생활패턴을 유지한 덕분에 좋은 컨디션 속에서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법학 공부를 시작하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건강한 정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생활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공부량과 끊임없는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정신력 관리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할 때 건강한 정신력을 유지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정립시켜 놓는다면, 그 방법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법학 공부를 하면서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학기의 대학원 생활이 끝난 지금의 저에게 지난 학기가 어땠는지 물어본다면 전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고, 생전 처음 접하는 법학이 생소했기 때문에 좌충우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어렵고 힘든 점을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이곳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면학의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해있는 스터디에 우연히도 저와 성(姓)이 같은 동기가 4명이 있는데, 이분들과 마치 원래부터 형제, 남매인 것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고 제가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가진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입학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 각기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뜻을 바르게 세우고 정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하는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된 2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천수이

66

법조인의 역할은 당사자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조언하는 역할 99

로스쿨에서의 생활도 어느 덧 절반을 넘어서며 과연 바람직한 법조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진 8월의 끝자락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과 신문방송학을 복수로 전공하였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제가 배운 두 가지의 전공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실무수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방학동안의 실무수습과정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론과 법리, 현장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지만, 이미 다른 몇몇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면서 실무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수습 첫 날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님께서 형식적인 환영사가 아닌 ‘미디어의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해주신 강의와 꼼꼼하게 짜여져 있는 실무수습 교육 일정표를 보면서 이 곳이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고, 하나라도 더 배워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실무수습은 크게 ADR 이론강의를 듣고 실제 심리에 참관하며 이를 토대로 이론과 실무를 우리 스스로 경험해 보는 토론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론강의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이해’, ‘포털과 언론’과의 관계 등의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언론과 인격권’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 지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의 중재 업무 및 중재 실무’에 대해 실제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강의를 바탕으로 실제 중재 심리에 참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 상사중재, 법원조정’ 등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각 분야에서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설득과 수사’, 현직 판사로 계시는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덕목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론과 실제 심리 참관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수습생들이 모의중재 형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중재를 스스로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현직 판사이신 중재위원장님과 언론인 출신의 중재위원님의 평가지도 들어보며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받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DR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막상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수습은 ADR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각 조정, 중재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심리참관을 하면서 중재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잘잘못을 명명백백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갈등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법조인의 역할은 치밀한 법리 전개로 승패를 결정하고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은 법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2주였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7명의 좋은 실무수습 인연들과 함께 새 시대의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경험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창**



“근대법학교육 120년, 로스쿨 제도의 가야할 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하영



사진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법전문·법학연구소 ‘근대법학교육 120년’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보완 위한 중지(衆智) 모아
“변시 제도 보완 선행”, “이론·실무 조화시키고 특성화 살려야” 한 목소리
“법과대학 폐지 후 학부법학교육 대비해야” 의견도

지난 9월 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법학교육기관이자 서울법대의 모태가 된 법관양성소 설립 120주년을 맞아 ‘근대법학교육 120년’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전시회와 동문초청행사가 함께 진행된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한 학술대회였다.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 언론, 정·재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법학교육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지(衆智)를 모았다. 이날 학술대회는 신희택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이근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학술대회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법관양성소가 설립된 1895년 이후 지금까지 120년 동안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걸어온 길을 정리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도출하는 시간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궁식 서울대 법전문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외부에서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교과과정 등은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법학교육을 외부에서 규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개편의 결과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대학별로 다양성과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합격률을 총 정원의 75%로 묶어둔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인 특성화 교육마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제 우리의 법학교육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도균 서울대 법전문 교수는 1962년 도입된 2년제 사법대학원 모델에 주목했다. 사법대학원은 1962년 2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의해 서울대에 설치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2년간 이론과 실무를 교육시킨 후 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석사논문을 제출해 통과되면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했다. 초대 원장을 역임한 故 유기천 교수는 사법대학원에 미국 로스쿨식의 사례연구법(case method)은 물론 학제적 교육과정을 도입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적인 문제를 여러 학문분야의 이론과 기법을 동원해 다면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김 교수는 “(사법대학원은) 교양과 풍부한 관련 지식을 가진 법조실무가 양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법학연구자의 양성도 목표로 하여 법학계와 실무계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며 “유기천 교수가 키워내고자 했던 법률가가 배출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하에서의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때”라고 결론을 맺었다.

두 번째 세션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제도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최근 쟁점들을 다루며 시작했다. 송석윤 서울대 법전문 교수는 이 제도가 긴 시간에 걸쳐 검토, 도입된 것임을 설명했다. 송석윤 교수는 “(법전문) 제도에 대한 논의는 법학계에서의 오랜 토론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영삼정부에서의 쟁점화, 김대중정부에서의 구체화, 노무현정부에서의 도입결정, 이명박정부에서의 출범과 도입이라는 장기간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들이 잘못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교수는 “세간에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로 독일에서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다가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든지, 일본에서의 로스쿨제도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는 우리 제도와 핵심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고비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2013년을 기준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39.3%이며 대부분 경제사정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해명하고 “로스쿨은 유복한 배경을 지닌 이들만 갈 수 있

전체사회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부장)	제2세션 :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의 법학교육
개회식		발표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논의와 최근 쟁점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발표 4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환영사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5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제1세션 : 근대법학교육 120년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제도사적 고찰		
	정궁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발표 2 지성사적 고찰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폐회식 폐회사_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다는 오해와 편견이 사회에 퍼져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처음부터 진로계획에서 이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형성 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채용경쟁에서 보다 다양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획일적인 잣대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법 강의 수강 등) 변호사시험 성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등한시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박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 역시 "변호사시험 점수 공개로 인해 학생들이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기간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주로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결국 일정한 유형의 시험에 대한 답안 작성을 위한 반복 훈련을 하는 셈이고 전문성과 열린 사고를 기초로 균형 잡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또 "현행 변호사시험 중 전문법률분야 선택과목 제도는 전문분야 교육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전문분야 교육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성화 방향을 정하여 행할 문제이지 정부가 전문분야를 정할 일은 아니며 선택과목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특정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전중익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과대학이 폐지되는 2018년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전 교수는 2018년 이후 학부법학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일반교양을 위한 법학교육, 진로탐색 및 준비를 위한 법학교육, 단과대학별 특별 수요를 위한 법학교육을 제시하고 "충실한 교양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서울대의 경우) 그러한 점에서 현실적으로 기초 교육원을 통한 학부 교양법학교육의 유지 및 추가개설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부법학교육이 대학 전체의 문 제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대학본부 및 다른 단과대학을 설득해야 한다"고 법과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발표를 매듭지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보완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임종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신규 법조인 양성에 대변혁을 선도하고 있고 대학교육과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선발이나 장학제도 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도 "우리 법률문화에 처음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발돋움하려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공정한 변호사 시험을 운영하며 충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보완으로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및 법학교육제도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토론을 마쳤다. **창**

※ 위 기사는 지면 관계상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발표와 토론 내용 중 일부만을 인용, 요약, 정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발표와 토론 내용의 인용과 게재를 허락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원서접수기간 : 2015. 10. 5(월) 09:00 ~ 8(목) 18:00까지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18	1	19	19	1	20	39	109	4	113	144	6	150	263	6.06	4.00	5.95	7.58	6.00	7.50	6.74			
건국대	38	2	40				40	124	7	131				131	3.26	3.50	3.28				3.28			
경북대	57	3	60	56	4	60	120	196	8	204	220	11	231	435	3.44	2.67	3.40	3.93	2.75	3.85	3.63			
경희대	56	4	60				60	197	12	209				209	3.52	3.00	3.48				3.48			
고려대				114	6	120	120				406	25	431	431				3.56	4.17	3.59	3.59			
동아대	38	2	40	38	2	40	80	307	9	316	319	8	327	643	8.08	4.50	7.90	8.39	4.00	8.18	8.04			
부산대	66	4	70	46	4	50	120	236	16	252	174	13	187	439	3.58	4.00	3.60	3.78	3.25	3.74	3.66			
서강대	19	3	22	18		18	40	162	6	168	151		151	319	8.53	2.00	7.64	8.39		8.39	7.98			
서울대	141	9	150				150	504	56	560				560	3.57	6.22	3.73				3.73			
서울시립대	45	5	50				50	166	13	179				179	3.69	2.60	3.58				3.58			
성균관대				114	6	120	120				501	25	526	526				4.39	4.17	4.38	4.38			
이주대	24	2	26	23	1	24	50	158	5	163	186	6	192	355	6.58	2.50	6.27	8.09	6.00	8.00	7.10			
연세대				114	6	120	120				365	33	398	398				3.20	5.50	3.32	3.32			
영남대	33	2	35	33	2	35	70	207	10	217	239	9	248	465	6.27	5.00	6.20	7.24	4.50	7.09	6.64			
원광대	30		30	25	5	30	60	297		297	269	15	284	581	9.90		9.90	10.76	3.00	9.47	9.68			
이화여대				94	6	100	100				331	19	350	350				3.52	3.17	3.50	3.50			
인하대	22	3	25	25		25	50	78	8	86	109		109	195	3.55		3.44	4.36		4.36	3.90			
전남대	58	12	70	50		50	120	299	22	321	256		256	577	5.16	1.83	4.59	5.12		5.12	4.81			
전북대	37		37	37	6	43	80	190		190	217	9	226	416	5.14		5.14	5.86	1.50	5.26	5.20			
제주대	18	2	20	18	2	20	40	90	3	93	112	5	117	210	5.00	1.50	4.65	6.22	2.50	5.85	5.25			
중앙대	46	4	50				50	176	16	192			-	192	3.83	4.00	3.84				3.84			
충남대	50		50	45	5	50	100	127		127	138	14	152	279	2.54		2.54	3.07	2.80	3.04	2.79			
충북대	40		40	26	4	30	70	277		277	204	11	215	492	6.93		6.93	7.85	2.75	7.17	7.03			
한국외대	26	4	30	20		20	50	146	12	158	114		114	272	5.62		5.27	5.70		5.70	5.44			
한양대	95	5	100				100	467	20	487			-	487	4.92	4.00	4.87				4.87			
합 계	957	67	1,024	915	60	975	1,999	4,513	227	4,740	4,455	209	4,664	9,404	4.72	3.39	4.63	4.87	3.48	4.78	4.70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제안한다



이은기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작금 대한변협, 서울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법학교수회 간에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국회에는 사시존치법안 6개가 제기되어 있다. 이러한 사태는 2007년 국회에서 로스쿨 도입을 결정할 때 사시존치 여부를 2013년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입법적 해결을 못하여 생긴 다름이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폐지론 논거는, 로스쿨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입학정원의 6% 정도를 할당해 등록금전액면제로 배려해 왔고, 로스쿨 재학생의 3분의 2가 재학 중 장학금 혜택을 받아 연간 실질 등록금이 1,000만원에 못미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과 비교해 볼 때 '부유층'만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사회일각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고, 사시를 존치시키면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의 사시존치론 논거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항은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계층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끊어 놓는 위험적 규정이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다수인 60% 내지 75%가 사시존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 제도를 상호 경쟁시켜 양질의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든다.

로스쿨에서 4회의 졸업자가 배출되었음에도 로스쿨 입학전형,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로클럭·판·검사 임용과정, 우수 로펌 채용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 시비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라는 불명예스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의 법조직역 진출이 사시에 비해 불리한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두 제도를 병존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로스쿨 제도가 우리 사회와 법제에 맞는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제도를 통한 각종 임용과 채용 등에 있어서의 갈등은 계속될 소지가 있다. 최근 현재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로스쿨 졸업자들의 취업상 불공정성이 해소될 가능성은 있으나, 사시출

신과의 임용 인원, 선발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종식될지 의문이다. 그 밖에도 50여 개에 이르는 로스쿨 비설치 법과대학의 효용성, 로스쿨 체제 하에서의 법학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대한 우려 등도 관련된다. 사시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데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어려운 선택지인 것인 게 분명하다.

대학에서 길러내는 판·검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고 인간과 사회의 법적 문제를 심판하는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또한 법률업무는 물론 사회의 Opinion Leader인데, 이들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와 같은 논의의 차선적 대안으로서 야간로스쿨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대전·충청권 등 4개 권역에 야간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이다. 야간로스쿨은 사법시험의 축소나 폐지로 인한 '희망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사회적 비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실무경험 있는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본래도 입취지에도 부합한다. 몇 년간의 로스쿨 교육에서 직장유경험자의 우수성은 검증되고 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도 주경야독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는가?

로스쿨의 본향인 미국, 캐나다의 경험을 살펴보건대, 야간 로스쿨은 판·검사, 변호사, 실무전문가 등의 활용으로 수준 높은 강의 개설이 되고 있다. 다만 주간로스쿨에 비해 등록금 인하와 수학연한 연장이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판·검사의 파견강의, 변호사의 봉사활동 및 재정지원으로 야간로스쿨의 등록금을 낮출 여지가 있다.

야간로스쿨 도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신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제 운영을 전제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로스쿨의 경우 법 제4조에 의해 교육부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기재하여 야간제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소외계층이나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 및 사이버 로스쿨 도입에 대해 발언한 것도 사회적 필요성의 발로라고 본다.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약 6%를 사회경제적 약자 TO로 배정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약자보호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설 야간로스쿨에 300명 정도를 할당하고, 주간로스쿨에서도 소득 중하위 계층에 대한 입학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사회적 비난을 로스쿨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성공적인 로스쿨 체제를 사시존치주장으로 흔드는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최대권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논문으로, 그리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1998-2000)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위해 애썼던 사람으로서, 2007년의 로스쿨법 제정 후 드디어 2009년에 로스쿨이 현실로 출범해 그 3년 뒤부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법조직 각 분야에 진출·활약하기 시작한 이래 로스쿨의 무난한 성공적 정착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 장래를 낙관해 왔다.

헌데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2017년이면 사라지게 돼있는 사법시험제도를 존속시키려는 무분별·무책임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나라 전체를 위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

로스쿨제도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우리와 일본로스쿨의 경우를 혼동해서 생긴 것이다. 일본에서는 로스쿨인가를 받은 대학의 학부 법과대학과 사시를 존치시키고 또 변호사시험 합격정원도 예정했던 년 3000명 이하로 대폭 축소시켜 왔던 까닭에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급속하게 떨어졌고 따라서 로스쿨의 인기도 떨어지게 되었다. 사시존치주장은 잘 정착돼 온 우리나라 로스쿨도 일본의 실패의 예를 따르게 만들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정원을 조정하는 법조계가 사시에서 배출될 법조인수를 감안해 로스쿨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정할 것임에 틀림없고 이와 함께 굳이 로스쿨을 가지 않고 사시로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시에 의한 법조인선발은 역시 전문직인 의사를 (의사)시험을 통해 뽑자는 것에 비견된다. 의사가 부족했던 과거 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시험으로 의사가 될 수 있던 시절도 우

리나라에 있었다. 고교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의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 없이도 사시로 고매한 전문직(learned profession)을 양성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발상은 세계적 추세나 우리나라 발전의 추세에 비추어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서구선진국 가운데 대학교육 없이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로스쿨 제도는 제대로 이수한 대학학부졸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종래의 송무중심의 법률가뿐만 아니라 학부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예, 특허법, 환경법, 경제법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법률가 양성에 사시출신의 경우보다 단연 유리하다. 우리는 곧 전면적인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또 문사철(文史哲)을 비롯한 인문교육·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공학 등을 두루 갖춘 대학에서의 제대로 된 학부·로스쿨 교육은 거기서 배출되는 법률가로 하여금 문제의 인성·직업윤리의식을 지니게 만드는데도 사시의 경우보다 단연 유리하다.

종래에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일학년 때부터 고시과목 위주의 암기식 공부를 하고 강의 수강도 고시과목 위주로만 했다. 법대생의 경우의 비사시법률과목은, 타과생의 경우 자기 전공과목은, 겨우 학점이나 따는 정도였다. 정치학과를 비롯한 사회대 인문대 등 여러 학과의 경우 과가 텅 빌 정도로 자기 전공과목은 팽개치고 고시학원 수강 등 고시공부에만 매달려 가히 캠퍼스 전체가 고시준비로 황폐화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로스쿨 체제는 대학 전체를 살리는 조치이기도 했다.

로스쿨이 주로 고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요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상승을 봉쇄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다.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의 사회배경을 비교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두 제도의 계층배경에 전혀 차이가 없다. 지금 로스쿨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광범위한 입학 및 재정지원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장차 고소득계층에 들어가게 될 로스쿨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이외 일체의 장학금이 없는 미국 로스쿨(및 메디칼스쿨)과 우리 로스쿨은 사뭇 다르다. 해결점은 로스쿨 약화가 아니고 오히려 로스쿨 정원과 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에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발간 자료집

독일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송석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로 세간에서는 독일이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는 주장이 거듭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되풀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는데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 독일의 사례”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독일 법과대학의 경우 1970/8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학생들은 대학입학 이전에 13년의 교육을 받고서 입학하는데 대학에는 교양과정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교과과정은 우리나라에서 학부 전공과정과 석사과정을 합친 것에 상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법률가, 의사, 교사나 개신교성직자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는 국가시험의 합격이 이를 대신하게 되어 있었다.

독일에서의 법률가 양성제도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그 이후의 실무연수라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1차 국가시험은 법과대학의 졸업학위인 동시에 실무연수에의 입학시험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무연수를 마치고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법조직역(독일에서는 변호사, 판사, 검사 및 행정공무원이 이에 해당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는 이른바 완전법률가(Volljuristen)가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19세기말에 이르러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독일에서도 20세기초부터 법률가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법철학자인 라트브루흐는 적극적인 사법개혁론자여서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1920년대초에 법학교육제도와 사법제도의 광범위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법률가양성제도와 관련하여 그는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년동안 변호사로서의 실무수습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변호사로서 종사할 것인지 국가가 주도하는 법관연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고 제2차 국가시험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개혁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어 1971년 독일법관법에 각 주에서 1단계 법률가양성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는 제1차 국가시험 전후로 대학교육과 실무연수로 나뉘어 있던 법률가양성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법학이외에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접학문을 도입하려 하였다. 각 주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법학교육과 실무연수를 통합하는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어 시도되었지만 1984년 이후 전통적인 2단계 모델로 복귀하였다.

지난 7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름계절강좌를 위해 방문했던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마리온 알버스(Marion Albers) 교수는 필자와의 대답에서 1단계 법률가양성제도를 통해 법학교육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2단계 법률가양성제도에 비해 교과과정의 밀도가 높아서 힘들기는 했지만 학업 중간의 적절한 시점에서 실무연수를 함으로써 “재미없는” 실용학문인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제도가 교육재정의 압박으로 확대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였다. 요약하자면 독일에서는 이미 백여년전부터 대학교육과 법률가 자격시험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단지 1971년에 몇몇 대학에서 실무연수과정을 대학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실험을 했고 이후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미국식 로스쿨이 존재한 적도, 이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독일의 법률가 양성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국가시험에는 약 70%, 제2차 국가시험에는 약 80%가 합격하여 해마다 8천명 전후의 신규법률가를 배출하고 있다. 법률가의 수는 약 340,000명에 이르는데 그 중 약 220,000명은 전통적인 법조직역에, 나머지는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로스쿨 도입 실패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독일의 모델을 수용하여 인구대비 연간 5천명의 신규법률가를 배출하자고 주장하지 않는 모순의 배경은 무엇일까. 어느덧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칠년이 지나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제도를 보완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은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성명서]

야당 국회의원을 오랑캐로 보는 대한변협

연합뉴스 보도(2015.10.7. '사시존치' 주장 변협 '친노-비노' 나눠 야당 공략)에 의하면 대한변협은 회장 직속하에 「사시존치 TF팀」을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한다.

변협은 직접 나서는 대신 고시생모임과 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교수 모임)등을 관련활동에 투입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한다. 또 고시생의 사시존치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계획한 뒤 이에 참여할 고시생 확보상황을 점검하다든지, 국회 사시존치 토론회에 참여할 고시생들에게 교통비, 식비를 후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친노 vs 비노 구도 以夷制夷(이이제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노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변협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 로스쿨은 법조계의 선진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이고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된 것이지 '친노', '비노'로 편가름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가 만든 법률을 폄하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大事(대사)는 뒤집어지기를 반복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할 법률가 단체가 저급한 정치모리배의 작태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교통비, 식비 등을 제공하며 고시생들을 동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저열한 행동으로, 대한변협이 법률가 단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변협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피해를 본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기사('15.10.7)> '사시존치' 주장 변협 '친노-비노' 나눠 야당 공략

고시생 전면에 두고 국회의원 압박...야당에 '以夷制夷' 표현도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과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두 의원이 사시존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고시생 모임은 이 의원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시존치 법안 입법청원을 요구하거나 사시존치 여론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보적인 답변을 듣자 시위에 나섰다. 당시 의원실 방문에 동행한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SNS에 시위 대상 의원을 지칭하며 '지역구 관리가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썼다. 해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고시생들의 이런 집단행동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회장 직속기구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이 직접 나서는 대신 고시생모임 등 연관 단체를 내세워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대한변협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TF는 사시존치 법안 입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시생 모임, 대한법학교수회 등을 관련 활동에 투입하는 계획을 짜 실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고시생의 사시존치 국회 청원 기자회견 계획한 뒤 이에 참여할 고시생 확보 상황을 점검하다든지, 국회 사시존치 토론회에 참여할 고시생들에게 교통비, 식비 후원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나아가 사시존치 관련 입법을 위해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전략을 세웠다. 여당의 경우 이정현 의원 등을 찾아가 'VIP에게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려 했다. 야당의 경우 의원 성향에 따라 접근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선 '친노 vs 비노 구도 이이제이(오랑캐를 이용해 다른 오랑캐를 제압)란 표현을 쓰며 비노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 로스쿨 도입·사시 폐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사법개혁의 틀에서 이뤄졌다.

TF는 문건에서 서영교 의원이 야간 로스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친노 중 면담해야 할 의원'으로 분류했다. 박주선, 박지원, 이석현, 정성호, 김관영, 양승조, 주승용, 조경태 등 비노 의원은 면담 결과 사시존치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변협 측의 이런 개별 접촉에도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두 의원은 시위 역풍을 맞는 상황이다. TF는 법사위의 우윤근, 이춘석 의원을 사시존치 반대로, 김재경 의원은 입장 유보, 홍일표 의원은 '사시부활 시기상조' 입장으로 분류했다. 이들 4명의 접촉은 다른 연관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가 나눠 맡았다.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이단단체가 아닌) 법정단체 변협이 의원 성향을 파악해 포섭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절박한 상황의 고시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를 압박한다는 것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사시존치 TF가 회장 직속으로 존재하지만 TF의 움직임이 변협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 측은 "사시존치와 관련해 변협에서 자리를 마련해주면 가기도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변협 하부단체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연결된 바도 없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주최하는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올해로 2회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년도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60개 팀이 지원했을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두팀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란?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 대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가상 사례에 대해 실제 절차에 따라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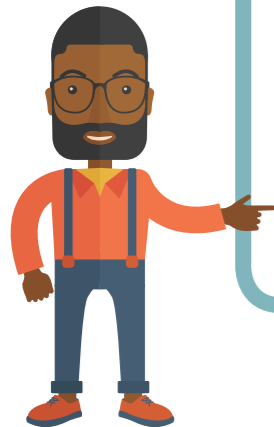


▶ 평가 요소가 궁금해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문제에 대한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절차준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수상팀에겐 어떤 특전이 주어지나요?

특허부분과 상표부분에서 1팀씩 선발되며 특허법원장상(300만원), 특허청장상(300만원)이 수여됩니다. 이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장려상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가 제공되고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상의 큰 혜택으로 꼽힙니다.



CHUNGANG UNIVERSITY



특허분야 대상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팀
손정우, 장윤영, 안시은

Q. 팀원을 모으게 된 계기는?

A. 저(손정우)와 장윤영 원우는 대학에서 각각 토목공학·자원공학, 생명화학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특허법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1회 대회에도 관심은 있었지만, 관련 과목을 수강해 본 적이 없기에 2학년에 진학하면서 본 대회 참가에 뜻을 모았습니다. 나머지 1명의 팀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과정에서는 대회경험이 있고 논리력과 친화력을 두루 갖춘 안시은 원우가 적합하다고 생각해 설득 끝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Q. 대회는 얼마나 준비했나요?

A. 올해 특허분야의 문제는 '권리범위확인심결 취소소송'에 관해 원·피고 양측의 준비서면을 다 제출하는 것이었고, 문제 발표 시점부터 제출일까지 약 3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서면을 제출하고 약 3주 정도가 지나면 본선 진출팀이 발표되고, 이때부터는 본선에 사용될 PT 자료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변론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이며, 발표시점부터 본선 대회일까지 약 2주 정도 준비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A. 팀원 3명 모두 특허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그리고 실제 특허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생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면을 작성할 때 법문서에 대한 작성요령을 아직 익히지 못한 터라 작성 방식에서 용어의 선정이나 목차의 구성 같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의 경우 각자가 외부로 실무수습을 나가는 기간과 겹치는 경우가 잦아서 시간 조율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허소송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각자의 시간을 최대한 할애한 덕분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Q.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먼저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과정에서는 제시된 발명과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연 시에도 3명의 팀원 모두가 발표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수강소감은?

A. 정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부 시절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공학 전공 학생들에게 있어 지난 1년간의 법전문 생활에서 빛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잊혀져 가는 혹은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는 하나의 기회로서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은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로서 잘 이끌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따라준 오히려 더 리더같은 모습을 보여준 장윤영, 안시은 원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은: 법전문에 입학하여 특허법 수업을 전혀 수강하지 못했고, 학부에서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허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실제 변론도 해보는 등 배운 것이 많지만, 호흡을 맞춰가며 서면 하나하나 수정하고, 서로의 변론을 봐주고 고쳐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방학 내내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INHA UNIVERSITY

Q. 팀원은 어떻게 구성했나?

A. '기업법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저(김정렬)와 홍석구, 임형진 학우와 의기투합 했습니다. 저는 법 공부를 갓 시작한 초학자이지만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수업들을 수강하며 배경지식을 갖추었다는 점, 홍석구·임형진 학우는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이력이 있어서 소송법을 비롯해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함께 팀을 꾸리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Q. 대회는 얼마나 준비했나?

A. 봄 학기 기말시험이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상표법 교과서를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공개되고 다시 일주일 동안 교과서를 읽으면서 관련 쟁점과 판례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서면은 제출 마감일 직전에 3일 정도 밤을 새우면서 작성했습니다. 본선 PPT 준비는 본선대회 일주일 전부터 준비서면을 뼈대로 토의를 거듭하며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경연 문제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참가자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각 당



상표분야 대상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팀
김정렬, 홍석구, 임형진

사자에게 유리한 쟁점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 지식도 탄탄하게 쌓아야 합니다. 법리를 오해하고 있으면 엉뚱한 변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워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Q.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A.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배우게 됐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준비가 충분하게 됐다고 자만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준비가 허술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본선 변론 중에 판사님께서 그 부분을 예리하게 질문하시자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지만,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Q.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법전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다면?

A.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본선, 결선을 치르는 과정은 '가장 법학전문대학원생다운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는 등의 환경 변화 때문인지 오로지 '변신'만을 위해 달려가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변론대회를 통해 실제 서면도 작성하고, 법정에서 변론도 해보면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관심분야였던 지재권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특허법원 심화연수도 너무 기대됩니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오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기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창**



명화란 무엇인가? 베르메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소녀에게는 이름이 없지만 1665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올해 348세가 되었습니다. 푸른 천을 머리에 두르고 귀에 커다란 귀걸이를 한 채 사람들을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소녀가 걸고 있는 진주 귀걸이가 그림의 핵심입니다. 헤이그의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 못지 않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느낌인데다가 모나리자의 기법인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하여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극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베르메르 특유의 미묘한 빛의 표현, 단순하지만 조화로운 구성, 선명한 색채가 돋보입니다. 그는 빛의 효과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두어번의 붓치로 진주귀걸이를 완성했습니다. 진주귀걸이는 하얀 옷깃에 부드럽게 반사돼 맑고 투명한 느낌을 줍니다. 소녀는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어깨를 틀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눈은 크고 입술은 관능적이면서, 시선과 표정이 비밀스럽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인 베르메르 화풍의 큰 특징이 잘 돋보이는 작품으로 특히 실내로 햇빛이 스며드는 분위기 묘사는 압도적입니다. 그는 역동적인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과는 달리 창문을 통해 걸러진 빛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실내 풍경을 중시합니다. 바로크적 격정이 충만한 명화가 렘브란트와 뚜렷하게 비교됩니다. 사실 명암의 대비가 분명하면서도 온화한 느낌을 주는 베르메르의 작품들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200년이 지난 후에야 전문가들의 격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남겨진 그의 작품은 40여점에 불과합니다. 베르메르는 상류층 주제나 종교적 소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로 평민들의 일상적 삶을 묘사한 단순한 풍경을 채취하였습니다. '저울을 든 여인', '우유 따르는 여인', '뚜쟁이', '화가의 아틀리에' 등

이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원색이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화면이 베르메르 작품의 특징입니다. 베르메르의 인생과 작가로서의 삶 자체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 국민에게는 국보나 다름없습니다. 소장된 미술관은 타국에서 그의 작품전이 열리더라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만큼은 절대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네덜란드가 얼마나 소중한 국가적 보배로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사실 베르메르는 풍경화가도, 초상화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하여 그에게 종종 초상화가라는 명예까지 안기기도 합니다. 베르메르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작품인 이 작품은 그의 작품 중 유일하게 인물의 얼굴만 클로즈업한 그림입니다. 윤곽선 없이 부드러운 색조 변화로 그려냈습니다.

살짝 머금은 듯한 미소뿐 아니라, 무언가를 응시하는 표정이 매우 정확하고 극사실적으로 생생합니다. 마치 살아서 지금 관객을 응시하는 듯합니다. 밝은 색채와 검은 뒷 배경의 텅 빈 공간은 이상적인 구도 안에서 정제된 분위기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요하면서도 정제된 분위기가 소녀의 형이상학적이고 순수한 이미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안료를 투과한 빛이 소녀의 귀에서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나 목 옷깃, 눈동자, 머리에 늘어트린 노란 옷감 같은 세부 물체와 함께 그림 전체에 생명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녀의 눈과 심장, 영혼이 지닌 비밀을 짐작하고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선호했던 노란색과 푸른색은 빛나는 조화를 이루며, 고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절제된 감성으로 드러내줍니다. 절제된 미소와 맑고 투명한 표정이 압권인 초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애정의 기억을 갖게 만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롯데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참고문헌
최병식, 미술품감정학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북유럽의 모나리자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오마이뉴스, 2008.1.22
블로그 편집자의 벤치, Harrison, 왜 하녀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을까
www.nesokorea.org
위작 사기꾼 반 메헤렌, 독일 속인 국민적 영웅되다, 조선일보, 2008.3.26

미국노에서 애국자가 된 베르메르 위작 전문가 메헤렌



베르메르 편지를 읽는 여인



메헤렌, 악보를 보는 여인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위작자가 있었습니다. 판 메헤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르메르 작품을 아주 똑같이, 그렇지만 완전히 다르게 그립니다. 이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보통의 위작자 같으면 비슷하게 베껴 그릴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베르메르의 작품을 많이 연구하여 베르메르의 화풍으로 새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을 베르메르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고 하니 다들 믿는 것이지요. 메헤렌의 방식은 네덜란드 전체와 당시 유명한 미술 전문가들은 물론 나치도 속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완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위작을 그리게 된 것일까요? 그건 자신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제 이 그림은 수백만 길더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했으나, 오늘은 아무 가치가 없고 공짜로도 보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무엇인가?” _ 1947년 공판에서 메헤렌

그는 어릴 때부터 미술 쪽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싶어했으나,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건축학 공부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해당 분야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델프트 공과대학교의 건축공학 쪽으로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화가였던 바르투스 코르텔링(Bartus Korteling)을 멘토삼아 종종 의견을 나누면서 미술가의 꿈을 꾸고 있었고, 이 시기에 얀 베르메르의 작품을 소개받아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진학이었기에 판 메헤렌은 대학을 가자마자 곧 건축학 공부를 포기하고 미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판 메헤렌이 화가로 활동하던 시절의 미술계는 고흐와 같은 인상파가 주로 유행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판 메헤렌은 고전주의, 사실주의 화풍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비평가들은 주류에서 벗어난 그의 작품에 호의적인 평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고전화풍이나 흉내내는 화가라는 식으로 혹평을 가하는 비평가들도 있었는데 결국 계속되는 혹평에 시달린 판 메헤렌은 비평가들을 놀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고전화풍이 찬밥신세이긴 하지만 과거 네덜란드 황금기의 유명화가 그린 작품이라면 비평가들이 찬사를 늘어놓았었는데,

이런 점을 노려 베르메르의 위작을 만들어 비평가들에게 보여주어 온갖 찬사를 하게 한 다음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밝혀서 비평가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의 대형 뮤지엄은 최소한 네덜란드 바로크 작품들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예를들어 렘브란트, 프란츠 할스, 요하네스 베르메르 같은 작품들 말입니다. 그 당시 새로 생긴 보이만 뮤지엄(Museum Boijmans)의 하네마 관장은 주위의 잘나가는 다른 뮤지엄들이 베르메르의 작품을 몇 점씩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점에 이 틈을 파고든 판 메헤렌은 베르메르의 화풍과 그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헤렌은 주로 베르메르의 초기작품들을 흉내냈습니다. 또한 그는 천연 안료를 이용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감의 벗겨짐까지 완벽한 계산에 의해 재현했습니다. 4년간 베르메르의 화풍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도록 연습하였으며, 17세기에 제작된 캔버스를 구하고 당시 스케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베르메르가 사용했다는 붓과 동일한 붓을 구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오래된 그림처럼 보일 수 있도록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로 처리를 하였으며, 100도~120도 사이의 높은 온도에 구워낸 그림 위에 북을 굴려서 의도적으로 균열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균열에는 검은 잉크를 흘려 채워넣는 형태로 17세기에 그린 그림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였지요. 물감과 붓 뿐 아니라 17세의 이름없는 화가들의 작품을 고미술상에서 사들여서 그림을 모두 지우고 그 위에 베르메르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메헤렌이 사용한 마법의 도구는 베이클라이트였습니다. 이를 이용해 일반 유화와 다르게 물감을 더 빠르게 경화 시킬 수 있어 오래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다리미나 오븐 또는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더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후 그림을 둥그런 원통에 말아서 바깥 당겨 줘서 자연스럽게 물감이 갈라지도록 만들고(Craquelure), 오래된 느낌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잉크로 물감이 갈라진 틈 사이에 쌓인 먼지를 묘사하는 것까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이 모이고 쌓여 갓 그린 그림을 200년이 넘어 보이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물감이 아닌 실제 17세기에 쓰이던 식물 광물 등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안료들을 직

접 채취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그의 작품의 색감 등을 도저히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메헤렌은 화학적 기교 뿐 아니라 베르메르의 채색 방법까지 거의 완벽하게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엑스레이 촬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화가가 그 밑에 그려 놓은 스케치나 채색의 과정 중 일어나는 수정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러한 수정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펜티멘토(Pentimento)라고 부릅니다. 최근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알게된 것은 판 메헤렌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수정한 방식마저 베르메르의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림을 베끼기 위한 그의 열정과 연구 등은 정말 그 어떤 화가에게도 뒤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1936년 처음 완성한 작품이 『엠마우스에서의 만찬(The Supper at Emmaus)』입니다. 그리고 판 메헤렌은 얀 베르메르의 전문가로 이름높았던 브레디우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세심한 기법이 들어간 위작이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브레디우스는 이 작품이 베르메르의 작품이라 감동하였고 여러 비평가들도 이어서 새로 발견된 명작에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베르메르 최고 전문가인 브레디우스로부터 그의 작품이 베르메르의 진품이라는 도장을 받은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판 메헤렌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술 협회에서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이 그림을 사들였습니다. 더불어 어딘가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할 뻔 했던 명작을 발견해냈다 하여 판 메헤렌의 명성 역시 올라갔습니다. 비평가들을 골탕먹이려고 시작했던 작업이 부와 명성을 가져다주자 여기에 맞들인 판 메헤렌은 이제 돈을 위해서 위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판 메헤렌은 1936년~1946년까지 베르메르, 프란스 할스, 피터르 더호흐의 화풍을 흉내낸 위작 8편을 제작하여 공개하였으며, 그 때마다 사람들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판 메헤렌의 위작을 사들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베르메르의 경우 작품이 워낙 적다보니 새로운 베르메르의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국자가 된 위작자 메헤렌

승승장구하던 메헤렌은 마침내 나치정부에게까지 베르메르 작품이라며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인>을 팔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죠. 세상이 바뀌어 1945년 전쟁이 끝났고 메헤렌은 국보급의 그림으로 인정받던 베르메르의 그림을 나치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반역죄 혐의로 잡히게 됩니다. 곧 네덜란드 전체가 그를 매국노로 손가락질하며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판매했던 모든 그림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재판부와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그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재판관에게 작품을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베르메르의 그림처럼 말이죠. 그 그림이 <선전에서 설교하는 젊은 예수>입니다. 그가 판 그림들이 가짜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범이 되어 오랜 수감을 해야만 했던 그는 이제 위조범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덜란드에서 매국노로 지탄받던 메헤렌은 이제 나치를 속인 신의 손을 가진 화가, 국민영웅이 됩니다. 경찰 관계자들의 감시하에 3개월 동안 위작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처음에는 매국노가 책임을 면피하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정교한 위조작품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판 메헤렌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국보급 보물을 팔아넘긴 매국노에서 나치들을 골탕먹인 위대한 사기꾼으로 평가가 수정되었습니다. 2년형을 받은 그는 너무나 유명해지면서 여러권의 자서전 계약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림 출처 www.essentialvermeer.com [창](#)

LAWSCHOOL NEWS



1. 사법연수원 간담회

8월 19일(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사법연수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법연수원 조용구 원장, 법전문협의회 오수근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실무강의,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프로그램, 상호협력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기자회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8월 21일(금) 법원종합청사(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국회의원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지역균형 발전, 법률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등은 사법고시가 가질 수 없는 법전문만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가 끊임없이 공정회 등을 열어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법률신문



3. 2016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9월 18(금)~19(토)일 양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는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됐다. 이틀간 약 4,500명의 수험생, 학부모가 참여해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특히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설치된 상담부스에는 법전문장, 교수, 입학사정관 등 학교별 5~7명이 1:1 개별 상담을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험생들은 올해 8월 23일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FFT) 성적과 학부 학점, 어학 성적, 본인의 점수 등을 고려해 개별 상담부스를 찾아가 입학 가능성을 살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전형 요소,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 시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입학 전형 가이드를 제공했다.



4. 한국법학교수회 정기 심포지엄

지난 10월 2일(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는 2015년 한국법학교수회 정기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한국법학교수회 홍복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학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법조계의 방향을 조망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법과대학 및 법학과와의 현황,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및 법학교육 상생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심포지엄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도록 했다"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과제", "법학부의 현황과 과제", "사시존치 주장, 합리적이지 않다", "법학교육 상생방안"이라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5. 한국법조인협회 입학설명회

10월 3일(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주최하는 입시설명회가 열렸다. 14명의 법전문 출신 변호사들은 설명회장을 찾은 150여명의 수험생들에게 입시 노하우 등을 설명했으며, 동시에 개별상담도 진행했다. 1:1 개별상담을 통해서 수험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같은 입시 노하우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 현직 법조인의 생활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집 발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근거 없는 로스쿨 폄하 및 편중된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시험 폐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사시폐지의 당위성', '사시존치 주장의 허구성', '사시 존치의 폐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라는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자료집 발간을 통해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창](#)

툭아보기

변호사를 한자로 풀이하면 말씀 변(變)자에 도울 호(護)를 쓴다. 피고나 원고를 위해 변론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정의실현과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것이 참된 변호인의 역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을 톨아보자. editor. 박소희

[어학사전]
'툭아보기'는 '살살이 톨아가면서 살펴보다'라는 순 우리말로,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어떤 변호사입니까?



변호인 *The Atto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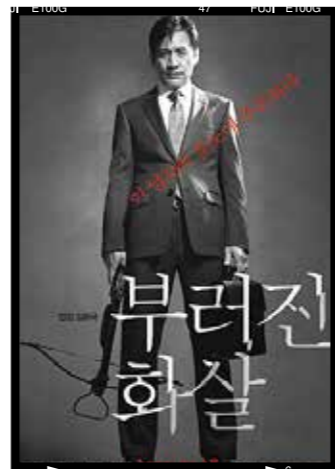
고졸 출신으로 판사가 된 송우석(송강호)은 '가방끈 짧다'고 무시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된 우석. 그러던 어느 날 단골 국밥집의 아들이 사라지고, 참담한 고문의 흔적과 함께 '빨갱이'라는 죄명을 쓰고 나타난다.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판인 법정에서 청년은 국가전복을 도모했다는 죄를 뒤집어 쓸 게 분명하다. 우석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정부를 상대로 외롭고 험난한 싸움을 시작한다. '참된 변호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영화.

[관전포인트] 지금까지의 배우 송강호의 모습은 잊어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한국 영화 / 2013.12.18. / 127분)

부러진 화살 *Unbowed*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경호(안성기) 교수. 교수 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경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된다. 그러나 피의자 김경호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으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았던 재판은 난항을 거듭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엇갈리는 진실.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인 '부러진 화살'의 행방이 묘연하다.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장에게도 독설을 서슴지 않는 김경호의 불같은 성격에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임된 자칭 '양아치 변호사' 박준(박원상)의 등장으로 재판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관전포인트] "이게 재판입니까? 재판이지!"라는 명대사를 남긴 영화. 실화임에도 영화적 재미와 균형을 놓치지 않는다. (한국 영화 / 2012.01.18. / 100분)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동성연애자인 변호사 앤드류(톰 행크스)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이름 있는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촉망받는 변호사로 발돋움한다. 회사에서 동성연애자를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 동성연애자라는 사실과 에이즈 환자임을 숨기지만, 그는 곧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 앤드류는 이 모든 게 법률사무소 대표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과거 라이벌이었던 변호사 조(덴젤 워싱턴)를 찾아가간다. 조는 처음엔 앤드류가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나 결국 그의 신념과 확신에 끌려 법정 투쟁에 들어간다.

[관전포인트] '성소수자'라는 소재를 법정에 가져가 독특하게 풀어낸 영화. 무엇보다 에이즈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10kg 이상 감량한 톰 행크스에게 박수를! (미국 영화 / 1994.03.26. / 125분)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I Just Didn't Do It*

직업을 구하는 중인 가네코 텃페이(카세 료)는 회사 면접을 보러 만원 전철을 탔다가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텃페이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담당 검사의 취조에서도 역시 무죄를 주장하지만 인정받지 못해 결국 기소되고 만다.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99.9%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텃페이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 변호사가 있었으니, 바로 베테랑 변호사인 아라카와 마사요시(아쿠소 코지)와 신참 여변호사인 스도 리코(세토 아사카). 그들의 법정 사투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 어다"라는 영화 속 대사를 떠올리기에 적절하다.

[관전포인트] 법의 부조리에 의해 선량한 사람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신랄하게 꼬집는 영화. 이 외중에도 카세 료는 멋있네. (일본 영화 / 2008.12.11. / 143분)



더 저지 *The Judge*

능력과 재력을 겸비한 변호사 헨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가족'이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고 하나뿐인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몇 십 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지만 이미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어색하고 먼 사이다. 어머니의 장례식 다음날, 갑작스럽게 경찰이 찾아와 차 사고로 도로에서 죽은 사람의 살해용의자로 아버지를 붙잡아간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통한 마을 변호사의 무능함을 견디지 못한 헨리가 아버지의 변호를 맡게 된다.

[관전포인트] 아버지, 그 가슴 벅찬이름. 아들 역할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대본을 읽고 오열했다는 후문이다. (미국 영화 / 개봉일 미정 / 141분)

지난 2012년까지 세계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그림은 몽크의 <절규>였다. 이후 '회화의 과물' 이라 불리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가 우리 돈으로 약 1천 528억 원에 팔리며 <절규>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또다시 2년이 지난 올해 5월,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 1천 968억 원에 낙찰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됐다. 올 겨울, 역대 고가 미술품 10위에 무려 4점의 작품을 올린 피카소의 전시를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도 함께 말이다.



공연장소 LG아트센터
 공연기간 2015. 11. 24(화)~2015. 11. 28(토)
 관람료 R석_8만원, S석_6만원, A석_4만원
 홈페이지 www.lgart.com

무라카미 하루키 x 니나가와 유키오, 세계적인 두 거장의 만남

해변의 카프카 (海辺のカフカ)

세계 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가 세계적인 연출가 니나가와 유키오의 손에 의해 연극으로 재탄생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이기도 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2년에 발표한 <해변의 카프카>는 2005년 뉴욕 타임즈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해변의 카프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15세 소년 다무라 카프카가 끊임없이 방황하며 삶과 죽음, 어른과 아이,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눈이 황홀할 만큼 아름답고 스펙터클한 무대를 통해 단 3분 안에 관객들을 연극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니나가와 연출가는 다양한 시공간을 오가며 펼쳐지는 소설 속의 세계를 26개의 거대한 투명 아크릴 상자 세트를 이용해 환상적으로 구현해낸다.

Musical

신이 되려 한 인간, 인간을 동경한 피조물

프랑켄슈타인

영국의 천재 여성작가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19세기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 당시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전쟁에서 '죽지 않는 군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신체 접합술의 귀재 앙리 뒤프레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프랑켄슈타인'은 충무아트홀이 지난해 개관 10년을 맞아 내놓은 작품으로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뮤지컬'과 '올해의 창작뮤지컬'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아홉 개 부문을 석권하기도 했다.



공연장소 충무아트홀
 공연기간 2015. 11. 27(금)~2016. 02. 28(일)
 관람료 VIP석_14만원, R석_11만원, S석_8만원
 홈페이지 www.cmah.or.kr

Exhibition

수상한 네 남자의 폭소만발 취미 사수 대작전

취미의 방

연극 <취미의 방>은 국내에서는 연극 <키사라키 미키짱>의 작가로 잘 알려진 코사와 료타의 최신작으로, 일본에서 첫 선을 보였던 당시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 삿포로까지 전 공연 매진사세를 기록하며 일본 전역을 강타했던 연극이다.

품격 있는 네 남자가 오직 각자의 취미 생활 만을 위해 만들어진 비밀 공간인 '취미의 방'에 모여 취미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실종 사건 수사를 위해 갑작스레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진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 받은 네 남자가 내세우는 기발한 알리바이는 관객들에게 포복절도 웃음을 선사하며 재미를 더한다. 특히, 거듭되는 반전은 잠깐의 틈도 없이 흥미를 자극하며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공연장소 뽀띠첼씨어터
 공연기간 2015. 11. 28(토)~2016. 02. 21(일)
 관람료 R석_4만 5천원, S석_3만원
 홈페이지 http://www.thebestplay.co.kr/



전시장소 예술의 전당 한기람미술관
 전시기간 2015. 11. 27(금)~2016. 03. 01(화)
 관람료 성인 1만 3천원, 청소년 1만원
 홈페이지 http://www.sac.or.kr/

근현대 서양미술사를 이끈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피카소에서 프란시스 베이컨까지

근현대 서양미술사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모두 베네수엘라 국립미술관 재단Fundacion Museos Nacionales의 국보급 소장작품이다.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 24점, 샤갈Marc Chagall의 작품 9점,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 15점,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 10점 등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20여명의 거장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여 그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보여준다. 추상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초기작부터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드로잉이 기하학적인 추상형태로 전이해 가는 과정, 입체파 화가 피카소의 여인의 초상, 워홀의 실크스크린 작품, 베이컨의 도발적인 회화작품까지 서양미술 거장들의 작품 100여점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창](#)



강원대학교



간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송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